

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전망

1

위안화 국제화 진전 상황

○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 추진해 온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위안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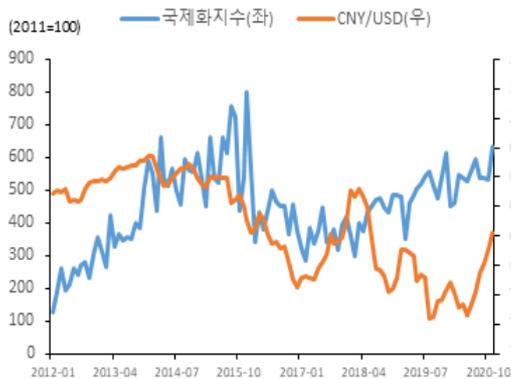
* 위안화 국제화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교환, 가치저장, 회계 단위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사용되는 것을 의미

- 중국 경제의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에 힘입어 2020.6월을 기점으로 위안화가 절상 추세로 전환되고 위안화 국제화 지수*도 2018년 이후의 상승세를 지속

* 위안화 국제화지수(Cross-border Renminbi Index): 중국 국경간 위안화 유출입 금액과 해외에서의 역외 위안화 유동성을 합한 금액을 지수화(2011년 4분기=100)하여 BOC가 매 분기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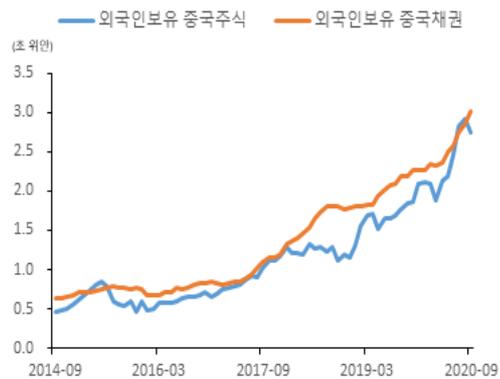
-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중국 주식(2019년말 2.1조 위안 → 2020.9월말 2.8조 위안)과 채권(2.2조 위안 → 3.3조 위안) 보유 규모가 증가

위안화 국제화 지수와 환율



자료: BOC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외국인의 중국 주식·채권 보유액



자료: Bloomberg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○ 전세계 외환보유액과 지급결제통화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캐나다 달러, 호주 달러, 스위스 프랑을 추월하거나 격차를 축소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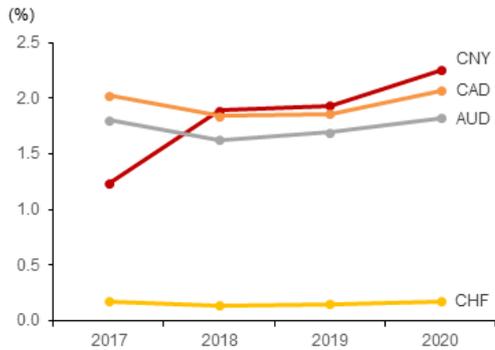
- 전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(2020년 2.25%)이 캐나다 달러(2.07%)와 호주 달러(1.82%)를 상회

- 국제결제통화에서 위안화(2020년 1.20%)가 차지하는 비중은 스위스 프랑(1.30%)

1) IMF는 전세계 외환보유액 구성통화 중 USD(미달러), EUR(유로), GBP(영국파운드), JPY(일본엔), CNY(중국위안), CAD(캐나다달러), AUD(호주달러), CHF(스위스프랑) 등 8개 주요 통화의 비중을 매 분기 발표하고, SWIFT는 국제결제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통화의 순위를 매달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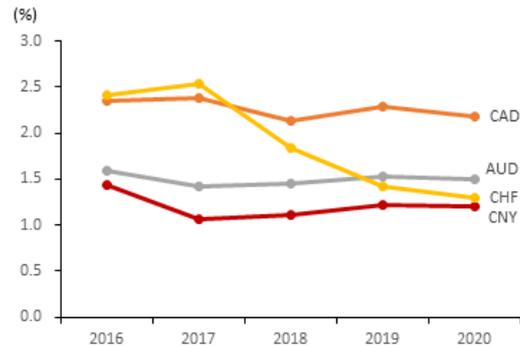
에 근접

전세계 외환보유액 통화별 비중


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국제지급결제 통화별 비중



자료: SWIFT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은 미 달러화와 유로화에는 부족²⁾하지만, 파운드화와 엔화를 추격하는 세계 5위 통화로 인식

위안화 국제화 관련 지표

연도	2010	2015	2020					CNY 순위
	CNY	CNY	CNY	USD	EUR	GBP	JPY	
국제지급결제통화 비중(%)	-	2.8	1.2	46.3	32.3	3.9	4.3	5
외환보유액 비중(%)	-	-	2.1	60.5	20.5	4.5	5.9	5
일평균 외환거래 규모(조달러)	0.03	0.2	0.3	5.8	2.1	0.8	1.1	5
비거주자 역외채권발행 규모(조달러)	0.002	0.024	0.025	2.938	0.472	0.106	0.031	5
주식시가총액 ¹⁾ (조달러)	-	-	4.7	25.5	3.7	5.1	5.1	4
연간 수출입규모 ²⁾ (조달러)	3.0	3.9	4.6	4.1	5.3	1.2	1.4	2
연간 명목 GDP 규모(조달러)	6.1	11.0	14.9	20.8	16.7	2.6	4.9	3
국가신용등급(S&P)	AA-	AA-	A+	AA+	AAA	AA	A+	4

주: 1) 중국 SHSE, 미국 NYSE, 유럽 Euro next, 일본 Japan Exchange Group, 유럽 국가 신용등급은 독일등급

2) 2020년은 2019년 자료를 사용

자료: IFS, Bloomberg, Statista, KITA, CEIC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(자본 외환시장 개방 확대), 금융시스템 안정화 도모, 경제 규모 증대에 힘입어 2030년경에는 위안화가 파운드화와 엔화를 추월하여 세계 3위 통화로 격상될 전망

*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2030년 중국 위안화가 글로벌 외환보유액의 5~10%를 차지하여 미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

2) 미 달러화(외환보유액 비중 60.5%, 지급결제 비중 40.9%)와 유로화(20.5%, 32.9%)는 대규모 경제, 자유로운 자본 이동,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, 안전자산(예: 높은 신용등급의 국채)의 대량 공급, 정치·군사적 안정성 등 기축통화의 조건을 모두 갖춘 반면, 위안화는 대규모 경제와 정치·군사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축통화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신용등급, 자본이동 자유화, 강건한 금융시스템,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규정 등에서는 아직 부족

- 2021.5월 한국거래소와 상하이거래소가 ETF 교차상장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함에 따라 향후 위안화 결제·환헷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
 - 일본-중국간 교차상장 사례와 양국 ETF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상장 초기 2억 달러 규모로 자금이 모집된 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(일본-상하이 ETF 교차상장 초기 8개 ETF(중국 4, 일본 4)에서 2.2억 달러의 자금 모집)
 - * 2021.3월말 ETF 시장규모(억달러): 상하이거래소 1,260, 한국거래소 530
- 금번 韓中 거래소 간 ETF 교차상장을 계기로 중국 주식·채권시장 직접 투자가 늘고 국내 위안화 거래도 활성화될 전망
 - 미국, 영국, 일본 금융회사들이 중국 본토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도 높아져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중국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(최근 위안화 강세가 이를 반증)
 - 韓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세, 對 중국 무역수지 흑자 기조,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(예: 디지털 위안화 발행, 자본자유화 확대), 중장기 위안화 절상 추세 등이 주요 동인
 - * 韓中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(%): 2014년 1.4 → 2019년 6.2 → 2020년 7.1
- 향후 5년간 국내 위안화 시장규모는 연평균 10%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5년에는 위안화 결제규모 262억 달러, 위안화 예금 40~8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
 - 국내 위안화 예금이 전체 외화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(2020년 1.8% → 2025년 6~10%)이 엔화(2020년 5.7%)와 유로화(4.4%)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은행의 위안화 비즈니스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
 - * 위안화 무역결제(억달러, 연구소 추정): 2016년 126 → 2020년 171 → 2025년 262
 - * 거주자 위안화 예금(억달러, 연구소 추정): 2016년 12 → 2020년 20 → 2025년 40~80
 - * 모건스탠리와 노무라 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.25%(세계 5위)에서 2030년 5~10%까지 높아져 파운드화(2020년 비중 4.5%)와 엔화(5.9%)를 넘어서는 세계 3위 통화로 격상될 것으로 예측